

## 광주시장 강운태(14.3%) 박광태(12.6%) 접전 전남지사 박준영(24.4%) 우세 속 3파전

광주일보·원지코리아컨설팅  
2010 지방선거 여론조사

광주 58%·전남 56% “시·도정 만족”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압도적

2010년 광주시장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광태 시장과 강운태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는 박준영 지사의 우세 속에 주승용 의원, 이석형 함평군수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내년 지방선거(6월2일)를 1년 앞두고 광주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가인 원지코리아컨설팅이 공동으로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애초 지난달 29~30일 실시하려던 조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감안해 1주일 늦춰 진행됐다.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의 경우 강운태 의원은 14.3%, 박광태 현 시장

은 12.6%를 각각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이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7.0%,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4.3%, 기타 7.8%였다.

전남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박준영 현 지사가 24.4%의 지지율을 얻어 11.4%를 얻은 주승용 의원을 크게 앞섰다. 이석형 함평군수가 8.1%의 지지율로 뒤를 이어 세 후보간 경쟁 구도 형성이 예상된다.

현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에 대한 시·도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광주 58.7%, 전남 56.2%)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광주 27.4%, 전남 13.8%)의 2~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 모두 ‘폐지해야 한다’(광주 48.7%, 전남 48.9%)는 응답이 ‘필요하다’(광주 24.4%, 전남 25.1%)는 응답의 두 배 가량 됐다.

거주에 대한 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는 64.0%가 만족한다고 답했, 불만족 응답(34.1%)보다 빈도가 높았고 전남 역시 만족(52.9%)이 불만족(36.6%)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다만, 강도에 있어서 광주시(62.6%)가 전남도(34.5%)보다 월등했다.

그 외 중요사업으로는 광주시의 경우 주민복지 향상(16.3%), 문화수도의 차질 없는 추진(5.5%) 순이었으며 전남도는 쌀 대책 등 농업·농촌문제 해결(25.7%),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16.3%), 주민복지 향상(8.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광주(54.7%)·전남(65.8%) 모두 다른 정당에 비해 크게 앞서, 지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확인됐다. 이어 민노당, 한나라당 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지역민 10명 중 1명(광주 6.3%, 전남 9.0%)만이 ‘잘하고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각 700명에 대해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응답률은 광주 24.1%, 전남 25.7%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별관 해법 꼭 찾읍시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의 간사위원들이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5월 단체 대표자들과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사위원인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조영택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시장과 정수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신경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허연식 5·18유족회 전문위원.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별관 해법’ 빠르면 27일 도출

10인 대책위원회·5월단체 합의안 작성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10인 대책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7일께 별관 철거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인 대책위원회’ 간사위원인 박광태 광주시장, 조영택 국회의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광주시청에서 정수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신경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안을 작성했다.

합의안은 ▲7일~27일까지 조정기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다 ▲조정 기간 동안 단일안이 도출 안될 경우 시민의 뜻을 묻기 위해 3차례 방송공개 토론회를 연다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시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 ▲7월15일까지 별관

을 강제철거하지 않도록 10인 대책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같은 합의안은 대책위가 오는 27일까지 5월 단체를 포함해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조정기간 동안 합의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별관 철거 논란의 해법을 도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법으로는 옛 도청 별관의 전면·부분 철거, 존치, 상징물 건립 등 그동안 제시된 모든 안이 고려되며, 시민의 뜻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등도 포함된다.

애초 대책위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월 단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갖되, 여의치 않을 경우 2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뒤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해법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5월 단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5월 단체들이 대책위의 활동에 공감하고 각계의 뜻을 물어 별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도록 일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논란을 서둘러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인 대책위원회는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3일 출범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 한국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허정무호, UAE에 2-0 승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의 금자탑을 세웠다.

〈관련기사 18면〉

허정무호는 7일(한국시간) 오전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에서 전반 9분 박주영의 선제골과 37분 기성용의 추가골에 힘입어 ‘중동 북병’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2-0으로 꺾고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4승2무(승점 14)를 기록한 한국은 남은 사우디아라비아(10일)와 이란전(17일)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2위를 확보해 2010년 남아공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한국의 본선 진출은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7회 연속이며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총 8회째가 된다.

또 7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록한 4회 연속 본선진출보다 훨씬 앞선 아시아 최고의 기록이다. 아울러 한국이 아시아 축구의 맹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한국은 UAE와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9승5무2패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출범한 허정무호는 첫 경기였던 칠레와 평가전 패배 이후 22경기 연속 무패(11승 11무)행진을 이어 갔다.

아시아에는 4.5장의 월드컵 본선 티켓이 배정돼 있으며 A조 및 B조 1,2위 4개팀은 32강이 겨루는 남아공 본선에 직행하게 된다. A, B조의 3위팀은 서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자가 뉴질랜드와 대결해 마지막 장의 티켓을 차지하게 된다. /서승일기자 szseo@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쾌거를 이룬 한국 선수들이 허정무 감독을 헝가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대비용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자세한 사항은 메이실로 예약부서로  
최종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0

LIRIKOS